



## 은성정밀인쇄(주)디자이너 임수영 씨

“제가 의도한 대로 인쇄부에서 표현을 잘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인쇄로 표현해 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대목에서 직원들간에 얼마나 호흡이 잘 맞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패키지인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은성정밀인쇄(대표 김 국)는 여러 가지 특수 인쇄기법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패키지를 인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그러나 만치

임수영 디자이너의 비중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입사 초기에는 패키지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당연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배우고 또 흥미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뒤 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임수영씨는 특별히 패키지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은성정밀에 입사한 것은 아니다. 대학교 졸업 당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천해 준 곳이 바로 지금의 은성정밀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되었다.

“입사한 지 올해로 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만, 입사하고 나서 일년 반만에 실장이 되사 하고 나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직원들의 격려와 도움이 큰 힘이 되었으며, 디자인을 전공하신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임수영씨는 은성정밀의 장점인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또한 “다른 디자이너들과 달리 직접 인쇄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특수인쇄에 대한 이해도 넓혀 나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수영씨는 자기 계발을 위해 웹서핑, 아이쇼핑, 전문서적 등을 통해 감각을 익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전 실장이나 그밖에 같은 일에 종사하는 선배들과 전화라도 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는 임수영씨는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린다.

〈윤재호부장〉

# “의도한 대로 인쇄될 때 보람”